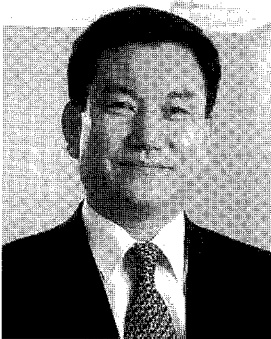


공장 자동화 · 산업용 온도계 분야 선두

열린 경영실천 · 품질분임조 활동 활발



◀ 한영수
(주)한영전자 대표이사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그 제품을 인정받고 있는 (주)한영전자를 찾았다.

서울시 문래동에 위치한 (주)한영전자는 1972년 10월 설립돼 공장 자동화에 필수적인 각종 디지털 프로세스 콘트롤러 등 산업용 온도 조절계 분야를 선두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987년 품질관리 지정업체로 선정된 후 국내 59개소 대리점과 5개영업소, 해외 54개국의 수출국과 61개 대리점 개설로 판매망을 구축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그 기술을 인정받는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에 (주)한영전자의 수상 내역은 그간 선보인 뛰어난 제품만큼이나 화려하다.

1994년 품질경영 100선 기업으로 선정, 기술 혁신 금상 수상과 품질경영 은탑 산업훈장 수훈, 1996년 계량 측정기 개발 금상 수상, 1997년 품질경쟁력 100대 기업으로 선정, 생산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0년에는 품질경영 우수 50대 기업으로 2회에 걸쳐 선정됐으며, 품질 경영 금탑 산업 훈장 수훈, 2001년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은상 수상, 국가 품질경영상을 수상하였다.

(주)한영전자가 별 탈 없이 이렇듯 꾸준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임직원 모두가 흘린 땀방울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과 열린 경영으로 신제품 개발 투자에 아낌없는 노력을 한 전문 경영인 한영수 사장이 한 몫을 차지했다 할 수 있다.

한영수 사장은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지만 한사람만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그 기업은 성공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며 “이에 (주)한영전자가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힘써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간 과감한 투자를 통한 신제품 개발, 대량



▲(주)한영전자 회사 전경

생산 체제에 적합한 “라인별 배치”를 통한 흐름 생산방식을 구축하고 제품의 정밀도·정확도를 위한 “자동교정” 설비 도입은 물론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EPR) 구축 등 과감한 개선과 혁신을 이룩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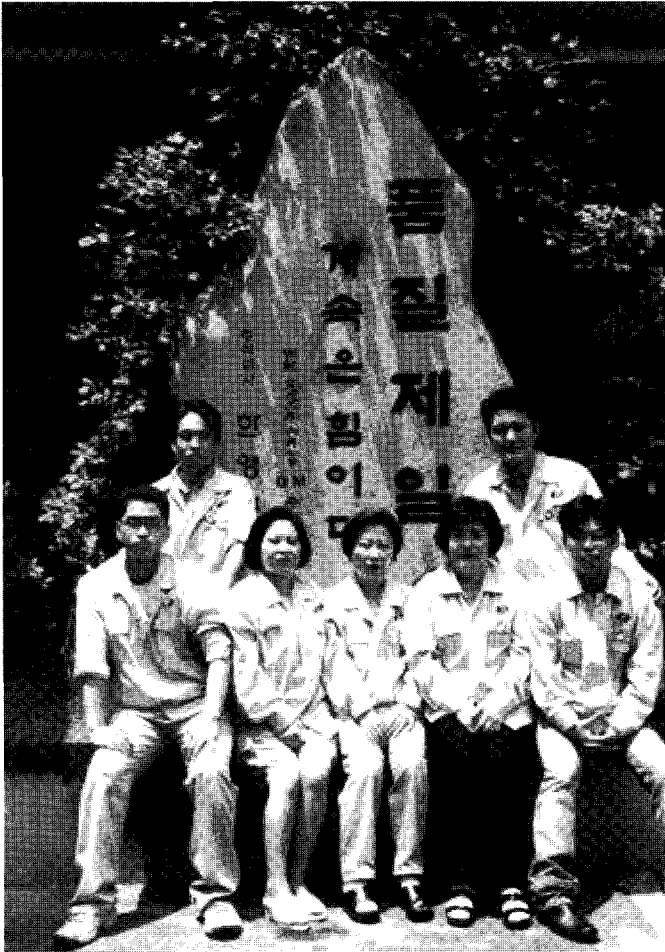
이에 (주)한영전자는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을 실현코자 0.1%의 정밀도는 물론 정확성 있는 제품 PX시리즈, NX시리즈인 자동 온도조절계를 비롯, 그동안 축적된 기술로써 타이머·카운터 패널메타, 근접스위치 및 센서 등 품질제품으로 임직원 모두가 “점프-21” 경영혁신 운동과 “특허 200건 달성하기 운동”을 추진하며 최고의 기술로 최상의 제품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주)한영전자는 온도 조절계를 비롯해 타이머, 카운터, 패널메타, 근접스위치, 포토센서, 전력조정기 등 340여 종의 다양한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온도조절계 PX Series, NX Series, NX1, UX100 Series, EF Series, HF Series와 프로그램 온도조절계 NP200, 포토센서 PE, PN, PU, PG, PR, PD Series, 근접스위치 HYP/HCP Series 등의 제품을 새롭게 선보인 바 있다.

품질분임조 활동

(주)한영전자는 사원 개개인이 서로 화합하고 조화롭게 활동하여 개인과 회사의 목적 달성에 초석이 됨을 목적으로 “품질분임조”를 결성해



▲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품질분임조 조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품질분임조는 기업의 체질 개선 발전에 기여하고, 인간성 존중과 보람 있는 명랑한 직장을 만들어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품질분임조의 진행은 주제 선정, 문제점 파악 후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그 후 문제점에 대한

원인 및 현상 파악, 원인 분석을 통해 그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언제까지 달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목표를 전원이 결정하는 목표설정의 단계를 거친다. 그 후 응급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구별한 뒤 대책수립 및 실시, 효과 파악, 표준화 단계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자체 평가와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품질분임조는 사내에서 뿐 아니라 사외에서도 대대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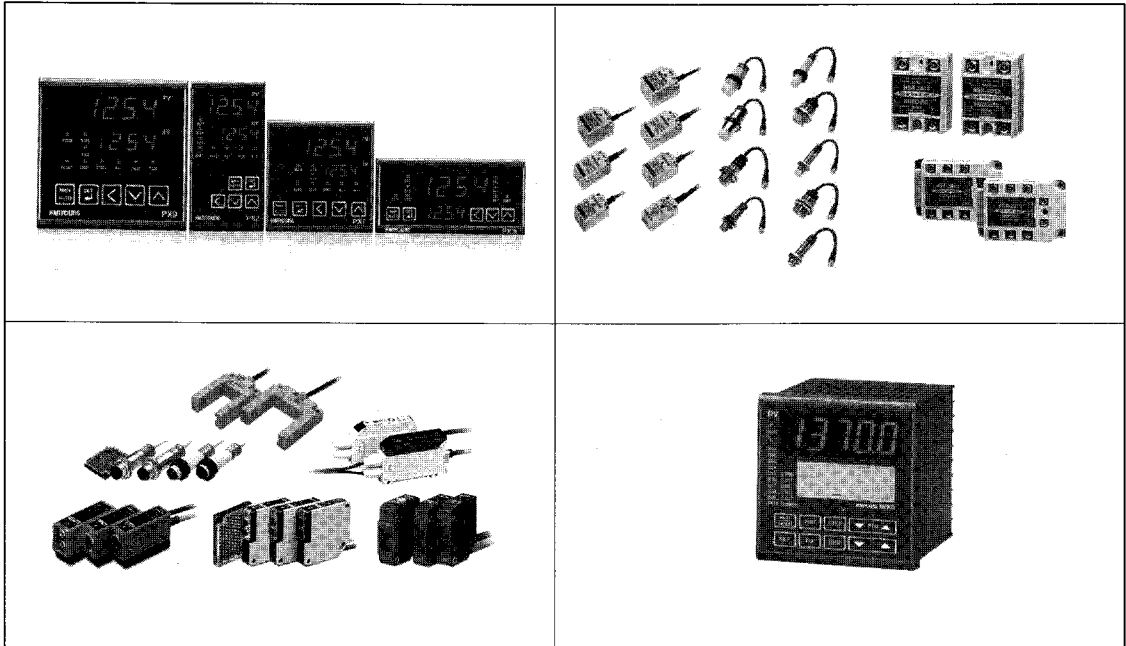
지난 2001 서울시 품질분임조 경진 대회에서 “코어부착 및 충전방법 개선으로 거리불량 감소”라는 주제발표로 은상을 수상했으며 국제 품질 분임조 대회에 참관한 바 있다.

분임조 한 조원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일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라며 “앞으로 만성적 불량개선과 예

방적 품질개선 활동을 통해 6σ품질수준을 달성코자 효율적이고 새로운 분임조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투자는 성공의 지름길

(주)한영전자의 자라는 전직원의 단합과 일에 대한 직원들의 능동적인 자세를 꼽을 수 있으며 신제품 개발은 물론 직원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 (주)한영전자 제품사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한 사장의 경영철학이다.

한 사장은 “뿌리지 않고 결실을 기대할 수 없고,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멀리, 그리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갖어야 합니다. 때문에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경제적인 실질적 도움도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라며 이로써 직원들이 일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는 물론 흥미를 갖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회사가 꾸준한 성장곡선을 보이는 것은 물론 자동제어기기 분야를 리드해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이다.

한사장은 전자전공 엔지니어 출신으로 30년 전 온도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당시 남들보다 먼저 제품 생산에 착수했으며 회사 설립시 그러했듯이 지금도 최고의 기술과 최상의 제품으로 앞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대기업도 지금에야 시도하고 있는 전자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1998년에 도입,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여느 기업보다도 한발 먼저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 최상의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공장 자동화·산업제어 부품 제조업체의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주)한영전자의 끊임 없는 연구와 노력에 기대를 걸어 본다. ☐

권해진 기자